

# 일반간호사의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지도 경험

최인순<sup>1</sup>, 서민정<sup>2</sup>, 전미양<sup>3\*</sup>

<sup>1</sup>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경상대학교 간호대학·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연구센터 조교수  
<sup>3</sup>경상대학교 간호대학·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연구센터 교수

## Clinical Nurses' Experiences i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In-Sun Choi<sup>1</sup>, Min-jeong Seo<sup>2</sup>, Mi-Yang Jeon<sup>3\*</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Changwon

<sup>2</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erontological Health Research in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sup>3</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Gerontological Health Research in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요약** 본 연구는 일반간호사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경남지역에 위치한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간호사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은 3개 주제와 8개 범주, 25개 하위범주로 구조화되었다. 3개의 주제는 '학생과 함께 성장하기', '나침판 없이 학생 가르치기', '역할 속에서 균형 잡기'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일반간호사에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지도에 필요한 지침과 교육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교육할 것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지도를 전담하는 임상실습 전담 교육간호사의 도입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간호사, 임상실습, 간호대학생, 교육, 경험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experience of nurses who working in general hospital located in Gyeongsangnam-do and leading the clinic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 qualitative descriptive method was employed.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until the data sufficiently reached saturation and analyzed through thematic analysis method. Three themes, eight categories, and twenty five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Three themes which emerged from data analysis included 'Growing up with students', 'Teaching students without a compass', and 'Balancing in a variety of ro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valuabl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nurses' experiences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which leads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es,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Education,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Mi Yang Jeon(myjeon68@gnu.ac.kr)

Received October 21,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19,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천철학을 지닌 응용과학으로, 간호교육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전문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여 졸업 후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 교육과 함께 임상실습 교육은 필수적이다[1].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등을 실제 간호 실무현장을 통해 습득하는 교육과정으로[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과정 동안 간호사의 간호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근무환경, 대인관계 등을 경험[3] 할 뿐 아니라 간호사에 대한 직업 가치관과 간호에 대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4]. 특히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의 증가 등 보건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임상현장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임상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5] 실습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간호교육기관의 임상실습교육은 임상실습 교과목을 담당하는 임상실습지도교원과 간호 실무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임상실습현장지도자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습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상실습현장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6]와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동의 수간호사에게 학생의 임상실습 지도를 위임하고 있으나 수간호사들은 병동 업무와 함께 학생 실습을 지도해야 하는 부담스러움[8]과 임상에서 직접 간호보다는 병동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간호관리 실습이외 교과목의 학생 실습지도는 일반간호사에게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간호사는 수간호사로부터 예고 없이 학생지도를 지시받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경험이나 준비 없이 임상실습 지도를 하게 된다. 이에 일반간호사는 임상실습 지도를 간호사의 역할로 수용하기 보다는 바쁜 업무 중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업무인 버거움 그자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9].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을 낯선 실습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매사에 주눅 들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0] 실습지에서 무시당하고 필요 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11]. 이는 임상실습이 간호실무 현장의 간호사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일반간호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임상실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실습지도자의 교육적 역량이 필요하다[12].

현재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임상실습지도자의 교수효능감[13], 임상실습 교수효율성[14] 등이 있으며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간호과학회의 분과학회인 한국간호교육학회와 각 학회에서 임상실습지도교원을 위한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현장 지도자와 관련된 연구는 수간호사의 간호학생 임상실습지도 경험[8, 15, 16], 실습지도교수와 간호사의 간호학생 임상실습지도 경험[9], 학생 임상실습지도자의 역할수행경험에 대한 내용분석[17] 등으로 임상실습지도자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뿐 아니라 실습지도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임상현장실습지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을 파악하여, 임상실습 지도 경험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반간호사의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지도 경험을 탐색하고자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 method)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이다.

###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남지역에 위치한 300병상 이상의 3개 종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1년 이상 학생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자로, 연구의 목적과 면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8명의 일반간호사이다. 연구 참여자는 면담을 실시하면서 자료의 유형과 범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는 즉,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편의 표집하였다.

###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 및 거부, 연구 중도 포기 가능과 그로 인한 불이익 없음,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과 연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 후 자료를 폐기할 것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연구 참여자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과 면담 동안 질문에 응답하기 곤란한 것은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사전에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 2.4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연구팀은 질적연구와 관련된 세미나 및 학회에 참여하여 질적연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책임자는 16년 동안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간호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임상실습을 지도하고 있다. 평소 임상실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임상현장실습지도자인 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는 간호대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경험을 이해한다면 임상실습현장 지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과 배제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해 철저히 학습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자문을 총 4인(국내 질적연구 간호학자 2인과 간호교육학자 2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자들의 선입견과 잘못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다.

### 2.5 자료 수집 방법

자료는 2017년 1월 3일부터 1월 26일까지 참여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으며, 참여자의 몸짓, 표정 등은 메모지에 기록하였다. 면담을 마치면 면담 당일에 연구자(Choi IS)가 직접 녹음내용을 필사하였고,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경험을 듣기 위해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인 병원이나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은 인사로 시작하여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자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대화에 직간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경청하였다. 면담소요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였다. 1차 면담자료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결과에 대해 대상자들의 피드백 및 의견을 듣기 위해 1차 면담자 8명 중 4명에게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질문은 Krueger와 Casey[18]가 제시한 질문 범주인 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리 질문의 특성을 고려하고,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함께 작성하고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핵심질문들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동안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로 하였고, 그 외 '임상실습을 지도하면서 좋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임상실습을 지도하면서 아쉬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지도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자 한 것 중 하지 못한 것이나,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 2.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일반간호사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에 대한 면담 자료는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에서 개념을 발견하고 각 개념간의 관계를 찾아 파악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자료내에 패턴화 된 반응이나 의미 수준을 기술하고자 Braun과 Clarke[19]의 주제 분석 6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 1단계: 필사된 자료를 계속 듣고, 계속 읽으며 문장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의미를 생각하며 자료와 친숙해졌다.
- 2단계: 임상실습 지도 경험에 대해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어구를 추출하여 248개를 초기 코드화하였다.
- 3단계: 추출하여 코드화 된 자료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 3개 주제, 8개 범주, 25개 하위범주를 추출하였다.
- 4단계: 주제를 다시 확인하는 단계로서 주제가 제대로 추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 5단계: 각 주제를 정화하기 위해 분석을 계속 진행하며 주제를 명확하게 정의 및 명명하였다.

6단계: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며 논문을 작성하였다.

## 2.7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 방법의 엄격성을 지키고자 Guba와 Lincoln[20]의 사실적 가치(truthvalue), 일관성(consistency), 적용성(applicability), 중립성(neutrality)을 적용하였다.

사실적 가치평가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는 학생실습지도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선정하였다. 면담의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으며,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이야기가 누락된 곳이 없는지를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였다. 전사내용을 모두 요약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2명의 참여자에게 확인하였으며, 2명의 참여자 모두 임상실습지도경험에 공감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료와 자료 분석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일관성을 위해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면담의 주제나 개념 추출 전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기록을 통해 그러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의 내용은 연구 경험이 많은 국내 질적연구 간호학자 2인과 간호교육학자 2인에게 고찰을 받았다. 적용성을 위해 연구결과에 대해 자료수집 전, 자료 분석 동안, 결과 기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구자간 반영적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자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4명의 간호사에게 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을 때 연구결과를 수긍하고 공감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위해 면담과 자료 분석 전에 연구자들은 일반 간호사의 임상실습지도 경험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등을 고려하였다. 면담 내용을 들으면서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선입견과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은 없었는지, 대화 중간에 면담내용을 중단하지 않았는지 등을 돌아보았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연령의 범위는 26세에서 44세로 평균 나이는 31.00세이였으며, 모두 여성이었고, 근무 경력은 3년에서 20년으로 평균 근무 경력은 7.75년이었으며 현 근무지는 도립의료원 1명, 종합병원 7명이었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year)	Working experience (year)	Work place
N1	44	20	Regional Public Hospital
N2	38	14	General Hospital
N3	28	5	General Hospital
N4	28	5	General Hospital
N5	26	3	General Hospital
N6	29	6	General Hospital
N7	26	3	General Hospital
N8	29	6	General Hospital

### 3.2 일반간호사의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지도경험에 대한 주요 진술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면서 표준화된 교육체계, 간호업무프로토콜과 실습지도에 대한 지침 부족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웠으나 학생을 가르치면서 간호사 자신도 학생과 함께 성장하였다고 표현하였고 임상실습이 간호사와 학생, 교수, 수간호사 및 환자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할을 수행하는데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일반 간호사의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지도 경험에 대한 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248개의 초기코딩에서 25개의 하위범주로 통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8개의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주제인 학생과 함께 성장하기, 나침반 없이 학생 가르치기, 다양한 역할 속에서 균형 잡기에 따라 범주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참고).

#### 3.2.1 주제. 학생과 함께 성장하기

학생과 함께 성장하기는 '전문 지식확장하기', '교육자로서 성장하기', '간호사로서 성장하기'의 3가지 하위범주를 가진다.

#### 가 전문 지식확장하기

전문 지식 확장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함을 알게 됨', '최신정보에 민감해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가짐'의 3가지 하위 범주로 이루어졌다.

#### 1) 지식이 부족함을 알게 됨

지식이 부족함을 알게 됨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 머뭇거리거나, 미처 대답을 못할 경우에 간호사식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Table 2. Category and Theme of Experience of Nurses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themes	categories	sub-categories
Growing up with students	Expanding expertise	Having the opportunity to acquire new knowledge
		Knowing the lack of knowledge
		Sensitive to the latest information
	Growing up as a educator	Knowing the joy of teaching
		Feel worthwhile seeing a student with improved practical skills
		Learning from students
	Growing up as a nurse	Feeling(Having) a pride in nursing profession
		Recognition of my abilities by superior
		Being proud of play a role of a senior nurse
Teaching students without a compass	Lack of standardized education system	Need protocol for nursing practice
		Teaching mainly in basic nursing skills.
		Lack of education on nursing practice guideline for students
		Practical contents are not organized and nurses instruct students freely
	Insufficient environment for student education	Observation-oriented practical environment
		Difficulty of individual instruction because of many students
Balancing in a variety of roles	Ambivalence toward students	Dissatisfaction with students who practice mainly on their assignments
		Being proud of student actively participating in practice
		Feeling pressured to carry out both nursing and student instruction at the same time
		Discomfort that a student is watching when carrying out nursing care
	Lack of communication on student practice between professor-nursing director-nurse	Due to lack of connection with a teaching professor, nurses do not know about detail contents of practice
		Insufficient specific guidance by nursing director on student instruction for nursing practice
		Need educational nurse dedicated to clinical practice of students
	Difficulty between student practice and patient care	Difficulty to ask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to become subjects for clinical nursing practice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hospital infection caused by students

“학생들이 case에 관해 질문하면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빨리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런 경우 아,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고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생각하죠. 그럴 때 성인 간호 책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어요!”(사례 4)

“한 번씩 학생들이 질문하는 부분에서 저도 약간 막히는 게 있을 때 아, 나도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때는 있어요.”(사례 5)

2) 최신정보에 민감해짐

최신정보에 민감해짐은 간호사는 예전에 배웠던 책 내용과 실습을 온 학생들이 최근에 배운 책의 내용이나 기준이 다를까,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기준이 다르지는 않을까, 실습지도하는 간호사의 지식이 부족해서 학생에게 혼돈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최신 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간호학 전공서적

이나 검색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내가 가르쳐줬는데, 책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으면, 학생들이 confer(집담회)할 때 어, ‘병원에서는 아직 옛날 방식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최신 정보를 찾아보게 되어요.’”(사례 8)

“이 병원 수준은 여기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걸 안 하더라, 이런 게 없더라. 혹시나 이제 그런 말들 때문에 병원 이미지도 나빠지고 간호사들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민감해져요.”(사례 8)

3)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가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가짐은 간호학과를 졸업한 지 오래된 경력간호사는 새로운 지식이나 변화된 간호술기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찾아보거나 학생과 함께 모르는 부분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배우지 못했던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지식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고 와서 물어보면, 우리도 찾아봐주고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환자에게 적용해서 가르쳐주게 되어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사례 2)

“신규 선생님은 학생들과 같이 study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사례 3)

## 나 교육자로서 성장하기

교육자로서 성장하기에는 ‘가르치는 즐거움을 알게 됨’, ‘실무능력이 향상된 학생을 보며 보람을 느낌’, ‘학생을 통해 배우게 됨’의 3가지 하위 범주로 이루어졌다.

### 1) 가르치는 즐거움을 알게 됨

가르치는 즐거움을 알게 됨은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로 가까이 다가와서 관찰하고, 궁금한 부분에 질문을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로 간호사를 따라다니며, 가르쳐주었을 때 학생들이 고마움을 표현 할 때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가르치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case같은 걸 물어볼 때는, 아, 우리 때도 저랬지. 가르쳐주는 재미도 있고.”(사례 4)

“제가 acting 하는 일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까이오고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추가로 막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제, 그럴 때는 되게 좋고 그럴 때 보면 기분 좋아요 뭐 선생님 된 것 같기도 하고.”(사례 8)

### 2) 실무능력이 향상된 학생을 보며 보람을 느낌

실무능력이 향상된 학생을 보며 보람을 느낌은 기본적인 술기술을 가르쳐 주었는데 바쁜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 가르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vital을 할 줄 아는 애들이 저를 도와주는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있을 때는 뭐 학생들이 참

잘하고 이래서 수간호사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 학생 되게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사례 8)

“혈압이 높았을 때 전자 혈압계 말고, 일반 혈압계로 재서 한쪽은 이렇게 나왔고, 반대쪽은 이렇게 나왔다고 해주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가르친 보람이 있고, 잘하니깐 더 알려주고 싶어요.”(사례 5)

### 3) 학생을 통해 배우게 됨

학생을 통해 배우게 됨은 처음 간호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환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열심히 간호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연차가 높아질수록 환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것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처음인 환자에게 되게 라포 형성을 잘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연차가 높은 간호사이지만, 정말 배울만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어요.”(사례 4)

## 다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간호사로서 성장하기에는 ‘선배간호사로서 역할하게 되어 뿌듯함’, ‘상급자에게 능력을 인정받음’,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낌’의 3가지 하위 범주로 이루어졌다.

### 1) 선배간호사로서 역할하게 되어 뿌듯함

선배간호사로서 역할하게 되어 뿌듯함에는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동안 선배간호사로 간호행위에 대해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실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거나 졸업한 후 간호사로 일하는 학생을 보면 임상에서 함께 일할 후배간호사를 선배간호사로 교육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응급실에 근무 할 당시에 제가 한 학생에게 foley 를 삽입하는 걸 보여주고, 직접 해보라고 했더니 학생간호사가 직접 실습을 해서 너무 인상적이었나 봐요. 취업 면접 볼 때 응급실 간호사 덕분에 이 병원을 지원했다고 했대요. 병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 때 뿌듯했어요.”(사례 6)

“제가 실습지도를 했던 학생이 나중에 간호사가 되어 임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했어요.”(사례 2)

**2) 상급자에게 능력을 인정받음**

상급자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일반간호사는 수간호사나 간호부장님에게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 칭찬을 받거나 학생의 실습지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거나 학생실습을 평가할 때 자신에게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고 느낀다고 말하였다.

“수간호사나 간호교육부장님께서 제가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학생들이 실습을 잘한다고 칭찬해줄 경우에 부듯해요.”(사례 2)

“수간호사께서 학생들 실습평가 하실 때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학생은 이런 부분에서 괜찮았다, 부족했다 등을 말씀 드리면, 학생들 실습평가에 참고하시죠! 저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사례 6)

**3)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낌**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간호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설명할 때 학생들이 신기해하고 궁금해 하는 모습에서 간호직에 보람을 느끼며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신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이 실습을 오면 거의 다 Case study를 주니까 Case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환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설명하면 학생들 자체도 신기해하기도 하고, 더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좀 마음에 보람이 있더라고요. 간호를 하는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사례 4)

**3.2.2 주제. 나침반 없이 학생 가르치기**

나침반 없이 학생 가르치기는 ‘표준화된 교육체계의 부족’, ‘학생 실습교육에 부족한 환경’의 2가지 하위범주를 가진다.

**가 표준화된 교육체계의 부족**

표준화된 교육체계의 부족은 ‘간호실무를 위한 지침이 필요함’, ‘기본간호술 위주로 가르치게 됨’, ‘학생지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실습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아 두서없이 가르침’의 4가지 하위 범주로 이루어졌다.

**1) 간호실무를 위한 지침이 필요함**

간호실무를 위한 지침이 필요함은 임상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병동마다 또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생을 일관성 있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간호업무를 표준화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병원마다 틀이 다르잖아요, 책이랑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순서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사례 8)

“저는 오래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많이 변했어요. 제 경우는 IM을 할 경우도 두드려서 연습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침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례 8)

**2) 기본간호술기 위주로 가르치게 됨**

한 병동에 여러 교과목을 실습하는 각기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면 교과목별로 실습내용을 구별하기 어려우니 대부분 기본간호술기 위주로 실습을 지도한다고 말하였다.

“한 병동에 성인간호학, 간호관리학, 통합간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실습하는 학생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간호사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교과목별로 구분해서 지도하기 힘들니까, 기본간호술기 위주로 실습을 지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목별로 필수로 가르쳐야 하는 목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 7)

“간호관리학 실습이라고 해도 그 교과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학교별로 요구하는게 다르니까 성인 간호부분이나 뭐...기본간호 부분이나. 그런 쪽으로 실습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사례 2)

**3) 실습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아 두서없이 가르치게 됨**

실습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아 두서없이 가르치게 됨은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간호행위를 하면서 생각이 나면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습 내용이 일괄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다르므로 실습기간 동안 학생들이 배워야 할 실습내용을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요일별, 시간별로 계획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냥 때에 맞추어서 ‘아, 이걸 가르쳐볼까?’ 하며 그냥 가서 가르쳐주고 처음부터 무엇을 가르칠 때에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항상 순서가 있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사례 7)

“항상 그 환자가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떤 애들은 배우고 어떤 애들은 못 배우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진짜 병원에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사례 8)

#### 4) 학생 실습지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학생 실습지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은 일반간호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학교에서 일반 간호사에게도 학생실습 지도에 대해 교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이 실습을 나올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라고 학교에서 요구를 하든지, 먼저 그런 부분을 간호사들을 모아 놓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도 미리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보여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학생이 실습을 나왔다’, 이렇게 공지만 하니까 이걸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사례 2)

#### 나 학생 실습교육에 부족한 환경

‘학생 실습교육에 부족한 환경’에는 ‘관찰위주의 실습 환경’, ‘학생이 많아 개별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움’, ‘학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의 3가지 하위 범주로 이루어졌다.

##### 1) 관찰위주의 실습 환경

관찰위주의 실습 환경은 과거에는 직접 간호행위를 실습 할 기회가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활력징후 측정 등을 제외하면 주로 관찰위주로 실습을 하고 있어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습득해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말하였다.

“투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간호업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직접해보지 못하고 관찰만 해요. 침상 만들기도 간호조무사나 간병사들이 다하니까, 요즘 학생들은 활력징후 하는 거 외에는 관찰 밖에 할 수 없죠.”(사례 1)

“학생 때 라인(IV line) 잡아보는 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실습할 기회가 너무 적어요. 기회가 되면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사례 6).

##### 2) 학생 수가 많아 개별적인 지도가 어려움

학생 수가 많아 개별적인 지도가 어려움은 한 병동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동시에 실습을 하기 때문에 병동에 실습하는 학생 수의 많다. 그러나 병동의 간호사나 병동에서 행해지는 간호업무는 제한적이므로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학교 사정을 저도 알지만,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실습을 나오면 일할 때 부닥끼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보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친구들은 이걸 보기 위해서 실습을 나온 거고 우리들은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더라고요.”(사례 3)

“학생들이 지금 나오는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학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1명, 2명 씩 오다가 어떤 경우는 8명씩 오니까, 학생들이 좀 많으니까,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눈치 보이니까 좀 흠어져 있어라 하게 되고,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사례 6)

##### 3) 학생실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

학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은 병동 내에는 학생들이 실습하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실습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실습에서 case study를 해야 하니까 임상에서 학생들이 환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안 되나 싶은데 컴퓨터도 부족하고 바쁘니까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사례 3)

“학생들이 환자이송과 심부름을 많이 한 날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좀 앉으라고 했는데, 막상 앉으려고 하니 까 앉을 의자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2)

#### 3.2.3 주제. 다양한 역할 속에서 균형 잡기

다양한 역할 속에서 균형 잡기는 ‘학생에 대한 양가감정’, ‘교수-수간호사-간호사간에 실습에 대한 소통이 부족함’, ‘학생실습과 환자간호 사이에서의 난처함’의 3가지 하위범주로 이루어졌다.



**가 학생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간호사와 학생관계에서의 학생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에는 '과제 위주로 실습하는 학생에 대한 못마땅함', '적극적으로 실습하는 학생에 대한 대견함', '간호업무와 학생지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감',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학생이 지켜보고 있다는 불편감'의 4가지 하위 범주로 이루어졌다.

**1) 과제 위주로 실습하는 학생에 대한 못마땅함**

과제 위주로 실습하는 학생에 대한 못마땅함은 학생들이 학교 과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나 자신의 사례에만 관심을 가지고, 병동의 다른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학생을 보면서 못마땅함을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요즘 보면 confer(집담회)를 위한, 그런 실습이 되게 많아서, 자기 환자 한 명만 잡아서 보통 하잖아요. 다른 환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선택한 그 환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 환자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EMR(전산기록)을 보며 자료만 수집하는 거죠(사례 7)*

*"저희 때는 무조건 간호사가 움직이면 무조건 뿔 하든 따라갔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게 없기는 없거든요. 저 따라가면 vein(혈관)도 만져보게 해주고, 각 환자의 피부 느낌을 좀 느껴봐라, 해가지고 기회를 주는데, 학생들이 안 따라오니까 기회 박탈이죠."(사례 8)*

**2) 적극적으로 실습하는 학생에 대한 대견함**

적극적으로 실습하는 학생에 대한 대견함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임상에 적용해보고,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실제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하는 간호 행위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준비된 자세로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면서 대견했다고 말하였다.

*"한번은 응급 환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CPR을 치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그때도 인력이 너무 없어서 가지고 코드블루를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compression(심장압박) 부분에서 조금 손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간호 학생 한분이 후시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지금 시행을 해도 될까요, 저 BLS 자격증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의지나 적극적인 태도에 놀랐고 대견했어요."(사례 3)*

**3) 간호업무와 학생실습지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감**

간호업무와 학생실습지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감은 일반간호사는 간호업무와 학생 교육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거나, 학생이 질문을 하거나 학생에게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에는 다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하였다.

*"항상 일에 치이다보니까 알려주다가 중간에 끊기면 애들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실습을 하러 와서 바쁜 상황이 계속 되니까,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 봐도 되나, 우리는 언제 다시 설명해주나, 막 이런 눈치를 서로서로 보게 되죠. 저희도 (너무 바빠서) 짜증이 나는 경우에는 저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사례 4)*

*"내가 바쁠 때 학생들이 옆에서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할 때에는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사례 2)*

**4) 간호업무를 수행 할 때 학생이 지켜보고 있다는 불편감**

간호업무를 수행 할 때 학생이 지켜보고 있다는 불편감은 간호사는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프로토콜대로 시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감은 있으나 간호사가 아직 간호술기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간략화된 방법으로 간호술기를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불편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학생이 항상 반갑지만은 않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저희만의 방식대로 일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오면 정석대로 보여주고 손도 씻고, 행동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사례 4)*

*"IV(정맥주사) 할 때 7~8번 찔려야 되는 경우, 여러 번 시도해야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지키고 서 있으면 IV 하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죠."(사례 1)*

*"제가 보호자랑 상담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너무 민망했죠."(사례 7)*

**나 교수-수간호사-간호사간에 실습에 대한 소통이 부족함**

교수-수간호사-간호사의 관계에서 '교수-수간호사-간호사간에 실습에 대한 소통이 부족함'에는 '실습담당교수와의 유대결여로 실습내용을 알지 못함', '실습지도에 대한 수간호사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부족함', '학생 임상실습 전

담 교육간호사가 필요함'의 3가지 하위 범주로 이루어졌다.

### 1) 실습담당교수와의 유대 결여로 실습내용을 알지 못한

실습담당교수와의 유대 결여로 실습내용을 알지 못한 학교의 실습담당 교수들은 실습내용을 수간호사에게는 설명하지만 일반간호사에게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간호사는 학생실습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없이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학생 실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실습담당교수가 일반간호사와 실습내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저희가 교수님 얼굴을 전혀 못 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교수님들이 분명히 우리 Head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학생이 왔다. 뭐 잘 부탁드린다. 인사는 물론 하겠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교수님 뵈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뵈 가르쳐야 될지 모르죠 뭐...”(사례 3)

### 2) 실습지도에 대한 수간호사의 가이드가 부족함

실습지도에 대한 수간호사의 가이드가 부족함은 수간호사는 병동의 지도자로서 학생들에게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해주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선생님을 따라 다니라고만 하니, 저희 간호사도 막막하고, 학생들도 이분을 따라 가야 되나? 저 분을 따라 가야 되나?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누가 몇 년차인지를 모르니깐.”(사례 1)

“간호사들마다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가면 안와도 된다고 하거나,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정해주면 좋겠어요.”(사례 8)

### 3) 학생 임상실습 전담교육 간호사가 필요함

학생 임상실습 전담교육 간호사가 필요함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학생실습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직접 간호는 일반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수간호사가 일반간호사에게 학생실습지도를 위임하는데 일반간호사들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을 지도해야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생실습지도를 전담하는 교육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생교육)프리셉터가 되면, 그게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학생을 좀 더 챙기게 되고, 좀 더 가르쳐주게 되고, 서로 간에 애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교육)프리셉터 제도가 없는 병원에서 지도를 해봤고, 있는 병원에서 지도를 해봤는데 챙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학생교육)프리셉터가 있는 병원에서 실습지도할 때 조금 애살 있게 되더라고요.”(사례 3)

“수간호사가 학생실습을 평가하는데 (학생교육)프리셉터가 있으면 1차적인 평가는 프리셉터가 하고 2차 평가는 수간호사가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 실습 태도라든지 술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체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1)

### 다 학생실습과 환자간호 사이에서의 난처함

간호사 환자의 관계에서 학생실습과 환자간호 사이에서의 난처함에는 '환자와 가족에게 실습대상자가 되어주길 부탁하는 어려움', '학생으로 인한 병원감염이 발생할까봐 염려됨'의 2가지 하위 범주로 이루어졌다.

#### 1) 환자와 가족에게 실습대상자가 되어주길 부탁하는 어려움

환자와 가족에게 실습대상자가 되어주길 부탁하는 어려움은 학생들이 환자에게 간호 행위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환자사례를 인용하는 경우에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학생실습을 위해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학생실습의 목적을 설명하고 실습 대상이 되어줄 것을 부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냥 뭐 foley(유치도노관)도 그렇고 line(혈관주사) 잡는 것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마루타로 한다. 이렇게 하니깐 협조 잘 되는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게 되죠.”(사례 8)

“학생들이 Case study를 한다고 하면 이제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나서 그 환자의 차트만 열거끔 하는데, 보호자 분 입장에서는 가정사를 공유한다고 생각해, 그걸 듣고 언짢아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말씀을 잘 드렸고, 절대로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출이 안 되도록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어요.”(사례 3)

#### 2) 학생으로 인한 병원감염이 발생할까봐 염려됨

학생으로 인한 병원감염이 발생할까봐 염려됨은 실습

학생들이 환자를 만지거나, 활력징후 측정 시에 손 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실습으로 인해 병원감염이 발생할까 염려된다고 말하였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은 환자 분들을 옮기고 나서 손소독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환자에서 다른 환자로 균이 옮기면. 네, 이게 정말 크거든요. 학생들이 환자복을 입힌 환자를 침대로 옮길 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것 좀 해 도라”하면은 한번이라도 만지게 되잖아요. 손소독을 하면서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데(걱정이 되죠).”(사례 3)*

#### 4. 논의

본 연구는 일반간호사들의 간호대학생 임상실습지도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은 3개 주제를 중심으로 8개 범주, 25개 하위범주로 구조화되었다. 3개의 주제는 ‘학생과 함께 성장하기’, ‘나침판 없이 학생 가르치기’, ‘다양한 역할 속에서 균형 잡기’이었다. 국내에서 간호사의 임상실습 지도 경험을 보고한 연구는 두 편이 있었다[9, 17]. 그러나 Song, Kim과 Kim [9]은 학생실습을 지도한 간호사가 수간호사인지, 일반간호사인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와는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ur 등[17]은 수간호사의 추천을 받아 기본 교육을 이수 한 후에 임상실습지도 간호사로 임명받고 간호대학생을 지도한 경험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을 탐색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병동의 수간호사에게 학생임상실습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병동에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수간호사보다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 간호사에게 실습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을 탐색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전문지식이 확장되고 교육자로 성장하며, 간호사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자신들도 성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 임상실습지도자의 역할수행경험을 분석한 Hur 등[17]에서 임상실습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서 자기계발, 자긍심 향상, 간호업무 수행능력 향상, 리더십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수간호사의 간호대학생 실습 교육 체험을 분석한 Kim [15]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 부딪하며 학생들을 통해 힘을 얻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15, 17]에서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을 지도하면서 간호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최신 정보를 찾아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지고, 간호사를 따라 다니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가르치고 난 이후에 실무능력이 향상되는 학생들을 보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학생을 통해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 간호사도 학생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을 탐색한 Kim [21]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 병원환경에서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과 모습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임상현장과 간호사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는 임상실습이 간호사와 학생 모두에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면서 가르치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학생들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교육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Jeong [16]이 수간호사들이 학생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간호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학생에게 임상실습을 통해 구체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실습에 만족하는 학생들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사가 간호대학생의 실습을 지도하는 리더십 행위를 통해 존재감 및 영향력 상승과 같은 내적 보상을 받았으며, 노력한 만큼 좋은 업무결과를 얻으면 간호사로서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임상실습과 관련된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없어 간호대학생이 어떤 실습교과목으로 실습을 왔는지 알지 못해 기본간호술기 위주로 가르치거나 환자 사례가 있을 때 두서없이 가르치게 되며 학생실습에 대한 교육이나 가이드가 없어서 나침판 없이 학생을 가르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Song 등[9]에서 학생이 어떤 교과과정으로 실습을 나왔는지 알지 못한 채 실습을 지도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9]에서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 지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실습에 대한 정보 없이 학생실습 지도를 떠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간호사들이 학생을 미래의 동료로 바라보고 간호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습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실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실습과 관련된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실습 지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생들을 일관성 있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간호업무 지침이 필요하며, 실습 내용이 체계적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Kim [15]의 연구에서 표준화된 병동실습 지침이 없어 자신이 나름대로 실습지도를 하면서 제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 갈등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업무에 대한 표준지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병원간호사회에서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나 다양한 간호업무에 대해 모두 개발하지는 못하는 실정으므로 향후 핵심 간호업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한다면 간호업무를 표준화할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이나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한 병동내에 다양한 교과목을 실습하는 많은 학생이 실습하고 있어 학생의 실습교과목에 따른 개별적인 실습교육을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간호술기 위주로 실습을 지도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Lee, Lim과 Kim [23]이 이직한 신규간호사의 학생임상실습 경험에서 다양한 실습기관과 병동을 배치 받아도 배운 게 똑같았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실습기관을 방문할 때, 다양한 체험을 기대하였지만, 새로운 임상수행능력을 배우기보다 새로운 장소에만 적응하느라 힘들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Song 등[9]의 연구에서도 기초적인 업무만 반복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실습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간호사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임상실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간호사나 임상실습 지도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지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학생실습 지도 전담간호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임상실습을 지도할 책임을 가진 학생실습지도 전담간호사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간호사들의 임상실습

지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실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관찰위주의 실습환경과 학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을 학생실습에 부족한 환경으로 말하였다. 이는 실습 시에 주로 관찰을 많이 하며[9], 수행한 간호행위가 활력징후 체크, 혈당 체크 정도 이었으며, 임상에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환자이송, 물건전달, 청소 등의 허드렛일이었고, 일부 부족한 조무사를 돕거나 타부서직원, 청소요원의 요청에 응하거나 환자 보호자의 잔심부름도 하였다는 연구[24]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최근 환자권리의 증대,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를 서비스로 생각하는 사회 현상 때문에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환자를 직접 간호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관찰위주로 실습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관찰 10번 보다 수행 1번이 더 흥미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느꼈으며 직접 수행이 없으면 배운 게 없다는 생각에 실습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교수자는 임상실습기관과 끊임없이 접촉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5]. 또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필수적으로 실습해야 하는 항목을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하고 실습기간 동안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면 일반간호사들도 학생을 지도하는데 지침이 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간호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과제 위주로 실습하는 학생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습하는 학생은 대견하게 생각하여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간호행위를 할 때는 학생이 보고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과제 위주로 실습을 하며, 학생들이 항상 따라다니며 모든 행위를 관찰하므로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간호행위를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9]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태도가 교수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기관에서 임상실습 전에 학생에게 임상실습의 중요성과 임상실습 태도 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사와 환자 관계에서는 학생실습을 환자와 가족에게 어렵게 부탁해야 하며, 간호대학생으로 인해 병원감염이 발생할까 염려되어 학생실습과 환자간호 사이에서의 난처하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이 학생들의 실습대상이 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간호수행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렵고, 환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학생이 부분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한 Kim [15]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환자, 보호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최상의 질적 간호를 요구하면서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실습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 간호사에게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간호행위를 실습해야만 신규간호사로 취업하였을 때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 간호대학생을 환자 간호에 참여 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간호사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일반 간호사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부담감을 감소시키면서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임상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위치한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 8명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 임상실습지도 경험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분석방법으로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면담 자료에서 248개 초기코딩을 추출하고 3개 주제와 8개 범주, 25개 하위범주로 구조화되었다. 3개의 주제는 '학생과 함께 성장하기', '나침판 없이 학생 가르치기', '역할 속에서 균형 잡기'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임상 실습 경험 중 긍정적인 측면은 전문 지식확장하기, 교육자로서 성장하기, 간호사로서 성장하기였고, 부정적인 측면은 표준화된 교육체계의 부족, 학생 실습교육에 부족한 환경, 학생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지도자와 실습에 대한 소통이 부족함, 학생실습과 환자간호 사이에서의 난처함이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지도경험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 전체의 간호사의 경험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일반간호사에 임상실습지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지도를 전담하는 임상실습전담교육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E. A. Flott & L. Linden. (2016).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 nursing education: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3), 501-513. doi: 10.1111/jan.12861.
- [2] S. S. Hong & M. J. Park. (2014).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369-377.
- [3] P. Ó. Lúanaigh. (2015). Becoming a professional: What is the influence of registered nurses on nursing students' learning in the clinical environment?. *Nurse Education in Practice*, 15(6), 450-456. <https://doi.org/10.1016/j.nepr.2015.04.005>
- [4] P. Paliadelis & W. Pamela. (2016). Learning from clinical placement experience: Analysing nursing students' final reflections in a digital storytelling activit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 39-44. <https://doi.org/10.1016/j.nepr.2016.06.005>
- [5] Y. H. Kang & M. J. Hong. (2014). Influencing Factors of Learning Styl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Performan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5), 2841-2853.
- [6] W. Y. Ip & D. S. K. Chan. (2005). Hong Ko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clinical environment: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2(6), 665-672. <https://doi.org/10.1016/j.ijnurstu.2004.09.019>
- [7] J. H. Song & M. W. Kim. (2013).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251-264.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8] Y. A. Park, E. H. Kong & Y. J. Park. (2018). Head Nurses' Experiences in Clinical Practice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A Qualit Research.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4(4), 337-346.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4.337>
- [9] M. R. Song, I. K. Kim & Y. K. Kim. (2010).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faculty and nurses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1(2), 106-118.
- [10] H. M. Son. (2014). Analysis of Positioning in the Nursing Students Narrative of the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129-137.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129>
- [11] J. W. Park & N. S. Ha. (2003). Nursing student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1), 27-35.
- [12] Y. S. Kim, J. W. Park, H. S. Kim, M. S. Yoo, K. S. Bang & J. H. Park. (2007). Perception of professors and nurses on clinical practice teaching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of colleges and clinical nursing departm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292-300.

- [13] Y. I. Park, K. H. Yoo, K. S. Bang, G. J. An & S. O. Le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a clinical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faculty and teaching 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53-361.
- [14] M. S. Chung, J. S. Park, E. J. Ryu, G. Y. Shin, H. Y. Jun & B. J. Kim. (2015). Teaching effectiveness and adequacy of practical trai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550.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4.550
- [15] S. A. Kim. (2018). *The Lived Experience of Head Nurses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550-560.
- [16] J. I. Jeong. (2003). Head nurses experience connectedly with clinical practice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4(1), 88-102.
- [17] H. K. Hur, et al. (2004). Cont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preceptors in clinical education for senior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859-868.
- [18] R. A. Krueger & M. A. Casey. (2000). Overview of focus groups.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19.
- [19] V. Braun & V.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20] E. G. Guba & Y. S. Lincoln.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 [21] J. S. Kim, J. J. Sun & H. S. Kim. (2009).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 63-76.
- [22] B. S. Lee, Y. S. Eo & M. A. Lee. (2015). Leadership experience of clinical nurses: applying focus group interview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671-683.  
doi: 10.4040/jkan.2015.45.5.671.
- [23] H. Y. Lee, H. S. Lim & M. Y. Kim. (2011). The clinical practice of newly graduated nurses who are resigned. *The Qualitative Research*, 12(1), 36-48.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4.337
- [24] K. O. Park & J. K. Kim. (2017). Experience of Incivility to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5), 524-534.
- [25] K. H. Yang et al. (2017). Meaning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Nursing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1(1), 59-74.

### 최 인 순(In-Sun Choi)

[정회원]



- 2015년 2월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9월 ~ 2018년 1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수료)
- 2015년 4월 ~ 현재 :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기본간호술

· E-Mail : belle7233@masan.ac.kr

### 서 민 정(Min-Jeong Seo)

[정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1997년 3월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1년 9월 ~ 2015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생애말기 간호, 간호윤리, 질적간호

· E-Mail : mjseo@gnu.ac.kr

### 전 미 양(Mi-Yang Jeon)

[정회원]



- 1991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4년 3월 ~ 1996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1997년 3월 ~ 2001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운동, 낙상, 환자안전, 간호교육

· E-Mail : myjeon68@gnu.ac.kr